



진안군자원봉사센터, '폭염 대비 안전센터' 운영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센터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군청 앞과 전통시장에서 '폭염 대비 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진안군민과 상인, 방문객들에게 얼음물과 부채를 나누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4일 장날에는 전용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백경대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에 동참했다. 두 사람은 무더위 속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부채를 전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을 챙기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활동은 전북농협, 전북은행, 전북개발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본부의 후원과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물품 지원으로 이뤄졌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폭염 대비 안전센터 운영 외에도 이동목욕차량 봉사, 세탁 봉사, 주거환경(집수리) 개선, 말안장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재동 이사장은 "작은 물 한 병, 부채 한 개지만, 무더위 속 잠깐의 힘이 군민들께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나눔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공설시장 등서 생수 나눔 캠페인 진행

남원시는 최근 공설시장에서 폭염 대비 시민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하루 생수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시 자율방재단(단장 노시철) 30명이 참여, 무더위 속 공설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500ml 얼음생수 3,000병을 제공하며 폭염 시 행동요령 및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했다.

남원시자율방재단은 평소에도 공설시장과 시외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수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폭염대응 요령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 현장에서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생활 속 폭염대응 요령이 담긴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원광대 등 한방의료자원봉사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영남함우회와 함께 '건강을 나누다' 한방의료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김제시민 누구나 무료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 매일 100명 이상, 3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 기간 동안 한의과 학생 및 졸업생, 지도 한의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복지관 다온관 강당에서 침, 뜸, 부항 기술을 비롯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간단한 약 처방까지 제공했다.

특히, 시술 전 예진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에 참여한 어르신 및 시민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전문적인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 "뽕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진료를 마친 어르신들이 주변 이웃에게 소문을 내어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제=곽도태 기자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

전북자치도, 전국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동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2025년 전국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부문 '동상(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자체 및 개인이 출품한 무궁화 분화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의 현장투표를 통해 종합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60점의 무궁화 분화를 출품했다. 출품작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신품종인 '용비(홍단심계)', '비상(아사달계)', '새천년(백단심계)'이 포함되었으며, 창의성과 품종의 고유특성, 균형감 있는 수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궁화는 한 나무에 수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며,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품평회는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



움과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무궁화 품종 개발과 화분 재배기술 향상에 더욱 힘쓰고, 도민과 함께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쌀의 날 아침밥 먹기 운동·전북쌀 홍보활동 전개

전북농협은 최근 쌀의 날(8월 18일)을 맞아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개최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과 전북 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밥먹기 캠페인 포토존 운영, 쌀 가공품 전시, 사진 등재(인스타, 페이스북, 카톡방 5인 이상)시 경품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쌀, 햇반, 김세트 등을 증정 하는 등 세계소리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전북광역브랜드 쌀인 십리향을 비롯하여 신동진 쌀 등 밥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전북 쌀을 적극 홍보했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쌀의 날을 맞아 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과 맞춤형 전북 쌀 판매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익산 작은자매의집에 성금 4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 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익산 작은자매의집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장애인 거주시설인 작은자매의집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 및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야외활동 조성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관내 부지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친환경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있는 작은자매의집은 이번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다양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의 전용 캠프장 운영을 위한 수도와 전기설비 설치로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달식은은 작은자매의집 원종훈 원장, 전북은행노조총합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익산지점 김복춘



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지역사회와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산재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지역사회와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산재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청 김건재 전 과장, 경로당에 김치 200kg 기부

김건재 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장이 지난 13일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름 식탁을 위해 응동면산 김치 200kg(2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번 나눔은 동 지역 경로당 40개소에 각 5kg씩 전달됐다. 경로당은 회원들이 모여 중식을 해결하는 곳으로, 대한노인회 안철원 수성동 분회장을 통해 일괄 전달됐다.

김 전 과장은 "최근 폭염을 피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조금이나마 맛있는 식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응동면 '자연풍 김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엔 전달된 '자연풍 김치'는 제조처인 산영농조합(대표 방정환)의 일부 후원으로 예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해 전달할 수 있었다. 김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헌혈·헌혈증서 기부 캠페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최근, 사랑의 헌혈과 함께 헌혈증서 100매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이하 전북혈액원)에 전달했다.

태권도원 도약센터 앞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들이 참가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023년,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맺고 연 2회 이상 임직원들이 참가하는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사랑의 헌혈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서 100매를 전북혈액원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한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통해 수술과 치료 등에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 장학금 1군민 1후원 계좌 갖기 캠페인

부안군 문화예술과(과장 김인숙)는 최근,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재)부안군근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1군민 1후원 계좌 갖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캠페인은 '1만원의 기적, 수혜자에서 후원자로 기부'의 선순환이라는 취지 아래, 부안군 전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범군민 후원 릴레이 운동이다.

동참한 문화예술과는 부안의 문화재단과 예술단체를 총괄 관리하며 행사지원, 문화유산 관리, 동학과 청자로 대표되는 지역문화 계승 발전 등 부안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부서로서,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부안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장학금 후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죽향동, 페이스북 통해 시정 현안 알리

남원시 죽향동(동장 임점숙)은 시정 소식을 친숙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1일 1기구 찾아가는 홍보를 병행하며, 시정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죽향동 페이스북은 어려운 행정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민들도 한 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직접 찾아가 홍보 자료를 전달하고,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맞춤형 대면 홍보를 해 정보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반찬지원사업 성금 전달받아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1일 1가구 방문 소문 행정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운봉읍 바르게살기살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영양 풍부한 반찬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후에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를 통해 반찬을 받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신신하고 안전한 상태로 반찬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원탁 위원장은 "더위로부터 안전하고 신선한 반찬으로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 꿈드림 청소년 대상 선진지 견학 성료

완주군교육박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 이하 꿈드림)는 최근, 꿈드림 청소년단 '화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군산에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완주=염재복 기자